

‘행동하는 평화’ 전통·현대 어울린 겨울동화 시작된다

미리 보는 개회식

‘Peace in motion’ 주제
올림픽 플라자서 오후 8시부터
21개국 외국 인사 27명 참석
최첨단 기법 성화 점화 기대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 경기일정(9일)

| | |
|--|---|
| | 오전 8:35 믹스 더블(혼성2인조) 3차: 노르웨이인 이기정, 장혜지 |
| | 오후 1:35 믹스 더블(혼성2인조) 4차: 미국전 이기정, 장혜지 |
| | 오전 10:00 팀이벤트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 차준환 |
| | 오전 11:45 페어 스케이팅 쇼트 프로그램 김규은-감강찬 |
| | 오전 10:00 여자 모굴 예선 1 서지원, 서정화 |
| | 오전 11:45 남자 모굴 예선 1 최재우, 김지현, 서명준 |
| | 오후 8:00 개회식 평창올림픽스타디움 |

자료/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연합뉴스



컬링 경기장 열기 2018 평창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8일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 예선 1차전 한국 대 핀란드 경기에서 경기장이 관중들로 가득 차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9일 오후 8시 전 세계 25억 시청자의 시선이 평창에 쏠린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이날 ‘Peace in motion(행동하는 평화)’이라는 주제로 올림픽 플라자 내 오각형의 전용 공연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17일간의 열전을 시작한다.

오후 8시부터 10시 10분까지 개최되는 개회식은 한국의 전통문화 정신인 ‘조화’와 현대문화 특성인 ‘융합’을 바탕으로 한 겨울동화 같은 이야기로 구성됐다. 3000명의 출연진이 개회식 무대를 수놓게 된다.

조직위원회는 2015년 7월 송승환 총감독을 선정하고, 영상, 음악, 미술, 의상, 안무 등 각 분야에서 예술감독단을 구성해 ‘2018년 2월 9일’을 준비했다.

개회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16개국의 정상급 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21개국 27명의 외국 정상급 인사가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동화 같은 공연이 끝난 뒤 태극 퍼포먼스와 태극기 게양이 이루어지고,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들(OAR·Olympic Athlete from Russia)을 포함해 대회에 참가하는 92개국 선수단이 한글 순으로 입장한다.

개회식의 하이라이트는 한반도기를 든 남북한 선수들이 장식한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한 남북한은 공동 입장해 전 세계에 감동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성화 점화자와 방식도 조미의 관심사다. 조직위원회는 “대한민국 문화의 정수를 집약할 예정이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21개국 27명의 외국 정상급 인사가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고 귀띔했다.

개회식의 최종 점검 무대였던 모의 개회식은 지난 3일 관람객의 찬사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날씨도 성공적인 개회식에 힘을 실어준다. 한반도를 감탄한 초강력 한파가 누그러지면서 개회식날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됐다.

조직위원회는 개회식장 전체에 방풍막을 설치하고, 난방설비, 히터 등을 주요 동선에 배치하며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입장하는 관람객 모두에게 관초 우의, 무릎담요, 핫팩, 손화개, 발화개, 방한모자 등 6종 세트도 지급한다.

관람객은 오후 4시부터 개회식장에 입장할 수 있다. 입장한 관람객들은 올림픽 플라자 안에 위치한 문화 ICT 체험관에서 백남준, 이종섭 등 국내 유명 작가의 작품 전시와 VR(가상현실), 5G, AI(인공지능)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스포츠 파빌리온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올림픽 기간 내내 다양한 공연과 메달 수여식이 개최될 메달플라자도 확인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와 8만 여명의 대회운영인력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 삼수 끝에 유치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해왔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지구촌의 축제가 시작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차준환·페어 김규은-감강찬 첫번째 연기

피겨 팀이벤트 순서 배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 팀이벤트에 처음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의 남자 싱글 차준환(위문고)과 페어 김규은-감강찬이 연기순서 1번을 배정받았다.

차준환과 김규은-감강찬은 8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팀이벤트 남자 싱글 및 페어 ‘명단 제출-연기순서’ 확정 회의에서 각각 첫 번째 연기자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팀이벤트 종목 남자 싱글과 페어에 출전하는 10개국(한국·

캐나다·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미국·일본·중국·이탈리아·프랑스·독일·이스라엘)의 명단도 처음 공개됐다.

출전 순서는 남자싱글 출전선수들의 세계랭킹 역순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가장 세계랭킹이 낮은 차준환이 1번 연기자로 선정됐다.

팀이벤트 페어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김규은-감강찬(세계랭킹 46위)도 10명의 출전팀 가운데 세계랭킹이 제일 낮아 첫 번째로 연기에 나서게 됐다.

/연합뉴스

무표정했던 북, 자체 공연때 남북 강강술래

북 선수단 입촌식

사물놀이·비보이 공연에도 차분
‘취주악단’ 아리랑에 밝은 표정
공연 뒤 박수 세례속 먼저 퇴장

갈라져 있던 시간 만큼 어색했지만 이내 ‘우리는 하나’가 된 북한선수단의 입촌식이었다.

원길우 단장이 이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이 8일 강릉선수촌에서 공식 입촌식을 가졌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 선수 22명과 임원 24명 등 총 46명을 파견했다.

이날 입촌식은 ‘북한’ 그리고 ‘자체 공연’이라는 키워드로 관심을 모았다.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냉전 분위기를 깨고 싶은 이들은 만큼 내외신 기자들의 눈길이 북한 선수단에 쏠렸다.

여기에 지난 6일 방남한 북한 예술단 ‘취주악단’의 축하 공연이 예고되면서 이날 입촌식은 더욱 화제가 됐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 원 단장을 필두로 국기광장을 지나 입촌식 무대로 향했다. 붉은 옷과 모자, 하얀 장갑과 장화 차림의 80명의 북한 예술단도 이들과 나란히 입촌식 현장에 섰다.

앞선 입촌식처럼 김기훈 강릉선수촌장이 선수단을 맞이했고, 김 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올림픽 오륜기가 강릉 하늘에 펼쳐졌다. 이어 인공기가 게양됐다. 앞선 입촌식에서는 우리 국군 의장대가 다른 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8일 강릉시 유천동 선수촌에서 입촌식을 갖고 북측 응원단의 축하공연 속 수호랑을 둘러싸고 남한공연단과 강강술래를 하며 즐기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라 국기를 게양했지만, 이번에는 민간인이 역할을 했다. 우리 군인이 ‘주적’인 북한의 국기 게양에 나서게 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어 사물놀이패와 비보이 공연단의 입촌식 축하 공연이 시작됐다. 중간중간 손뼉을 치며 호응하는 선수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분했다. 편곡된 ‘쾌지나창칭 나네’라는 곡에 맞춰 공연단이 선수들을 향해 모으려고 했지만 북한 선수단은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취주악단’의 ‘반갑습니다’를 시작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두 번째로 선

택한 연주는 ‘아리랑’이었다. 잠시 숙연해졌던 현장은 풍년가, 바다의 노래, 흥애야, 등이 연이어 나오면서 흥겨워졌다.

공연단을 마주하고 선 북한 선수단이 마침내 밝은 표정으로 몸을 움직이며 호응하기 시작했다. 공연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을 가운데 두고 원형을 만든 뒤, 우리측 공연단과 손을 맞잡고 어깨 동무를 하며 마침내 함께 어울렸다.

냉담한 공연 반응에 긴장했던 우리 공연단도 밝은 표정으로 역사적인 순간을 즐겼다. 준비된 공연이 끝나자 취주악단은 ‘반

갑습니다’를 외치며, 박수 세례 속에 먼저 퇴장했다. 선수단은 밝은 표정으로 수많은 카메라와 자원봉사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우리는 하나’를 보여줬다.

북한 관계자는 “아리랑이 나올 때 가슴이 찡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어울려서 춤을 추고 하니가 감동적이었다”고 미소를 지었다.

북한 선수단 앞에 서서 청사초동을 들고 입장한 김승하(강릉송양초 3년) 양은 “긴장도 됐지만 우리 전통춤을 같이 춰서 좋았다. 아리랑 연주도 좋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도쿄·베이징으로 이어지길”

日 NTV 마코토 아마자키 아니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올림픽이 되어 다음 도쿄, 베이징으로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8일 강릉선수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취재를 위해 한국을 찾은 외신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핫 플레이스’였다. 이날 북한이 공식 입촌식을 가지면서 국내 취재진은 물론 해외 취재진까지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일본 취재진의 관심이 컸다. 현장을 찾은 많은 일본 취재진은 실시간으로 입촌식 현장을 중계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일본에 ‘북한’은 정치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특별한 나라다.

북한 입촌식 취재를 위해 강릉선수촌을 찾은 일본 NTV 마코토 아마자키(사진) 아니운서는 “어디 가나 한국 메스컴이 많이 왔는데, 오늘은 다른 나라 관계자들도 많이 왔다. 우리뿐 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분단국가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마코토 아마자키는 “다른 나라의 입촌식을 보면 처음부터 선수들이 박수를 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빨리 어울리려는 모습이었는데 북한 선수들은 달랐다. 열을 흐트러트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다가 마지막에 하나가 되는 모습이었다. 역시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의 기틀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평창에 이어 2020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2022년에는 중국 베이징이 바통을 이어받아 동계올림픽을 치른다.

마코토 아마자키는 “추운 곳에 왔다(웃음). 더 뜨겁고 화끈하게 다들 즐길 수 있는 평창 올림픽이 되면 좋겠다”며 “평창 다음에는 우리 도쿄이고, 그 다음이 베이징이다. 같은 아시아인데 평창을 성공적인 올림픽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